한국어 화 표현에 나타나는 은유와 환유

이 정민　　이 익환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서울시 마포구 신촌동 134
우 120-749
cmlee@ccs.yonsei.ac.kr

연세대학교 인문학부
서울시 마포구 신촌동 134
우 120-749
ihlee@bubble.yonsei.ac.kr

Metaphor and Metonymy of Anger Expressions in Korean

Chong Min Lee

Graduate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Ik Hwan Lee

College of Liberal Arts
Yonsei University

요약

은유와 환유에 의해 생성된 문장들은 합성성의 원칙(compositionality principle)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언어학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Lakoff(Lakoff & Johnson 1980; Lakoff 1987, 1993)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인 접근이 시도되면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의 일상언어의 많은 표현들이 은유에 의해서 생성되며, 인간의 인지체계가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1]은 화(anger)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한국어 표현들을 분석하여 인간의 인지체계의 은유적인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1 머리말

인지의미론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어휘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전통적인 어휘 의미론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의미란 정적으로 언어 체계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 표현들과 관련된 지식, 그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상황에 대한 지식과 감각적, 감정적, 여러 경험 면에서 비슷한 상황들에 대한 관련 지식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상황마다 모든 관련지식을 끌어내어야 하고 이는 언어사용자마다 다른 관련 지식일 것이므로 그 처리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의미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까?

인지언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의사소통이 별다른 큰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지적 기제(cognitive mechanism)를 가정한다. 사람들은 도식(schema), 범주화(categorization), 환유(metonymy), 은유(metaphor) 등의 기제를 사용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억 속에 저장하고 지식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기제의 하나인 은유와 환유가 화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들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여 보겠다. 전통적으로 은유나 환유에 의한 표현들과 이에 기초한 관용어, 속어들은 언어학의 주요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법과 의미 규칙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제외하기에는 우리 일상 언어사용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은유와 환유적 표현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유와 환유는 단순한 문학적 기교임을 넘어서 우리의 언어사용을 풍부하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인지적인 기제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2 인지적 기제로서의 은유와 환유

2.1. 은유

은유와 환유가 인지적 기제라는 가정은 많은 철학자들이나 인지 언어학자들로부터 지지되어 왔다(Lakoff & Johnson(1980), Ungerer and Schmid(1996)). 즉, 사람들은 추상적인 범주이나 개념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실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개념화를 하는데 이를 돕는 인지적 도구가 은유와 환유이다.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와 환유가 단순히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넘어서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은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은유는 추상적인 인지 영역을 구체적인 인지영역에 사상하여 표현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 하여 이 두 영역이 사상되는 것(mapping)이 은유이다. Lakoff & Johnson은 이렇게 은유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인

1) 본 연구는 대우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지 체계 자체가 은유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표면 구조상으로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은유적 표현들(metaphorical expressions)[2] 일지라도 그 표현들은 인지 체계 내의 공통된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에 의해 동기화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돈이나 귀중한 자원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1) a. 쓸 데 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마.**
b. 촌음을 **아껴서** 공부를 해라.
c.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d. 선수들이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군요.
e.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f. 바빠 죽겠는데, 그런 데 **쓸** 시간이 어디 있니?

한국어 사용자에게 위의 표현들은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인식 없이 사용되고 있는 일상적인 표현들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목적어와 같이 사용된 '낭비하다, 아끼다, 내주다, 벌다, 모자라다, 쓰다' 등의 동사들은 대개 구체적인 자원이나 돈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다. 이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시간은 돈, 또는 귀중한 자원(TIME IS MONEY, TIME IS VALUABLE COMMODITY)'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시간은 목표 영역이 되고 귀중한 자원이라는 근원 영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념화된다.

2.2 환유

인지적 기제로서의 환유(metonymy)는 하나의 개체를 사용하여 그와 관련된 다른 개체를 지시(refer)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이 두 개체 사이의 관계는 근접성(contiguity, nearness)으로 설명된다. 즉, 환유의 표현으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 전체로서 부분을 나타내는 것, 용기로서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나타내는 것, 재료로서 그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을 지칭하는 것, 제조회사의 이름을 들어 그 제조된 물건을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장소로 기관을 또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기도 하며, 통제 받는 것으로써 통제자를, 원인을 들어 결과를 지시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언어표현과 지시 대상은 인간의 인지체계 속의 스키마에서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스키마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이나 전체 스키마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과 지식은 일반화되어 스키마로 조직되는데 이러한 스키마를 이루는 부분들 끼리나 부분과 전체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스키마의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전체 스키마를 또는 전체를 언급함으로써 부분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언어 표현은 스키마의 중요한 또는 현저한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그러한 양상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다음 쪽의 그림 1에서는 Ungerer and Schmid(1996)가 정리해 놓은 환유의 표현을 영어와 우리말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영어	한국어
부분-> 전체	*His crime cost him his* ***head.***	증권가에 **큰 손**(->많은 돈을 가진 사람)
전체-> 부분	*to fill up* ***the car***	**차**(연료통)에 기름 좀 넣고 가자.
용기-> 내용물	*The baby needs* ***a bottle.***	끝나고 **한 잔**(->술) 합시다.
재료-> 물건	***a glass, an iron***	지갑에 **푸른 종이**(->만원 짜리 지폐)가 가득하다.
제조회사-> 제조물	*buy a* ***Ford***	**크리넥스** (->크리넥스 휴지) 한 장 줄래?
장소-> 기관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라고 **청와대**(->정부)는 밝혔다
장소-> 사건	***Watergate*** changed our politics.	**광주**(->광주 민주화 운동)는 민주화의 불씨를 일으켰다.
통제 받는 것-> 통제자	*The* ***buses*** *are on strike.*	**버스들이**(->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원인 --> 결과	His native **tongue** is German.	항상 요 **입**(->말실수)이 말썽이라니까.

그림 1

2.3 은유와 환유: 유사성과 차이점

Lakoff & Turner (1989)는 은유와 환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은유와 환유의 공통점은 둘 다 개념적인 성질을 가졌고, 관습화되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기재이며, 언어자원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며, 사상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은유가 추상적인 영역을 구체적인 인지영역을 통하여 구조화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반면, 환유는 같은 인지영역 내에서 하나의 개체를 들어 다른 것을 지시 기능을 하며 다른 범주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유도 역시 이해를 돕는 기능이 있다. 즉, 한 인지 영역 내의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지시하는 경우 다른 많은 부분들 중에서 특히 한 구체적인 부분을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부분이나 그 특성을 강조하므로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한편, 앞 절에서 논의된 바를 보면, 은유와 환유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는 두 기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언어 표현들에 있어서 은유와 환유 중 어떤 것이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두 기제

2) Lakoff(1993)는 은유적인 표현(metaphorical expressions)과 은유(metaphor)를 구분하였다. 은유적인 표현은 전통적인 학문들에서 사용된 개념들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을 통해 나타내는 표현들을 말하고 은유란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지적 체계의 개념 바탕을 말한다.

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3 감정 표현에 나타나는 은유와 환유

은유와 환유에 대한 연구시 감정의 표현(emotion term)들이 종종 그 연구 대상이 되곤 한다. 그 이유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우므로 많은 표현들이 은유나 환유의 기제를 통하여 생기기 때문이다. 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화라는 감정의 실체를 정의하기보다는 화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의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처럼 화의 실체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화가 유발하는 생리적 특징을 들어 화의 감정을 표현하는 환유나 화를 다른 인지 영역에 연결시키는 은유에 의해서 많이 표현된다. 또한, Lakoff(1987)는 감정을 개념적 내용을 배제한 느낌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사람들은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을 가지게되고, 그 개념에 기초하여 그 느낌에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즉, 감정 표현들은 그 기저에 깔린 개념적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표현의 개념적 기초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화의 감정에 깔려 있는 개념적 기초를 살펴보겠다.

3.1 환유에 의한 화의 표현

감정들과 그 감정이 일으키는 생리적 증상들 사이에는 환유적 사상(metonymic mapping)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 절에서 살펴 본 환유의 관계들 중 원인-결과의 관계에 해당된다. 즉, 어떤 감정이 야기하는 여러 신체적 증상들을 들어서 그 감정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Kovecses & Lakoff(Lakoff 1987)는 이러한 환유의 법칙을 '한 감정의 생리적 결과는 그 감정을 나타낸다(THE PHYSIOLOGICAL EFFECTS OF AN EMOTION STAND FOR THE EMOTION)'라고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화의 감정 또한 화로 인해 유발되는 생리적 결과들을 통해서 환유적으로 표현된다. Lakoff (1987)에 의하면, 화가 난 사람은 몸의 열과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 부분이 빨개지고, 떨리고, 정확한 지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생리적 현상들을 표현한 어구들이 화라는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다음의 예문들은 몸의 열이 많아지는 것으로 화가 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2) a. **열** 받지 마!
b. 아유, **열** 나./**열불** 나.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화날 때 자주 사용되는 속어 표현인 '열 받다'와 '열 난다' 에서 몸의 열을 통해서 환유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화에 의해 내부적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표현함으로서 그 원인인 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3) a. 너의 엄마 **혈압 오르신다.** 그만해.
b. **피가 거꾸로 솟는다.**
c. **핏대 올리다.**
d.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다.
e. 와, 정말 **뒤집어지겠네.**

(3)의 표현들은 어떤 내부적 압력이 신체에 가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을 표현한다. (3)의 a, b, c의 표현들은 피와 관련하여 혈압이 높아짐과 정상적으로는 아래로 흐르는 피가 비정상적인 압력에 의해 위로 솟음을 표현한다.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신체를 용기에 은유적으로 사상하는 것(THE HUMAN BODY IS A CONTAINER.)과 관련하여 용기 속의 내용물이 어떤 압력을 받아 아래와 위나, 겉과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다음은 얼굴과 목 주위가 빨개지는 현상을 묘사하여 화를 표현하고 있다.

(4) a.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붉히다.**
b. 그 이야기를 듣자 그의 얼굴이 **시 뻘개졌다.**

위의 예문들은 '불그락푸르락', '시뻘개졌다', '붉히다' 등의 표현으로 얼굴이 빨개짐을 표현해 환유적으로 화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화가 나서 몸이 부르르 떨리는 신체적 증상으로 화의 감정 전체를 환유적으로 표현하였다.

(5) a. 화가 나서 **부르르 떨었다.**
b.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c.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
d. 치를 **떨다.**

한편, 얼굴이 빨개지거나, 떨리는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정확한 지각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6) a. 그는 분노로 **눈이 먼** 상태였다.
b. 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c. 나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이 먼',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등의 표현은 정상적인 지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화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의 생리적인 증상들이 장기화되고 심화되었을 때 이는 병이 되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7) a. **화병**이 나다.
b. 얘기해서 풀어버려. (화를 참으면) **병**이 되.
c. **돌아가시겠네.**
d. 와, **죽겠네.**

이와 같은 표현들은 화가 초래한 결과인 병이나 죽음을 들어서 그 원인인 화의 감정을 환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생리적 현상을 들어서 화의 감정을 표현하는 환유적인 사상에 의한 표현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예들은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 공격적인 행위를 표현하여 화난 감정을 환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8) a. 그녀는 **화가 나서 삿대질을 했다.**
b.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c. 약이 올라서 **발을 동동 굴렀다.**
d. **두 주먹을 불끈거리며 쥐다.**
e.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위의 예문들을 보면 발을 구르는 것, 주먹을 휘두르는 것, 삿대질하는 것 등의 구체적인 행동 즉, 화의 결과를 들어 그 원인인 화의 감정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

3.2 은유에 의한 화의 표현

화가 났을 때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생리적 증상에 근거하여 화는 또 다른 인지 영역인 열기(heat)에 은유적으로 사상된다. Lakoff(1987)는 열기를 고체에 적용시킬 때 '화는 불(ANGER IS FIRE)'의 은유가 나온다고 보았다. 또한, 열기가 액체에 적용되어서는 인간의 신체를 감정을 담는 용기로 보는 은유(THE BODY IS A CONTAINER FOR THE EMOTIONS)와 결합하여 '화는 용기에 담긴 뜨거워진 액체(ANGER IS THE HEAT OF A FLUID IN A CONTAINER)'의 은유가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영어의 화(anger)는 열기(heat), 불(fire)에 사상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되며 이 밖에도 미친 상태(insanity), 사나운 동물(fierce animal) 등에 연결된 은유의 표현들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 절에서 분석할 우리말의 화 표현 역시 많은 부분이 영어와 유사한 개념적 은유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시될 예문들은 우리말의 화의 표현이 열, 불, 미친 상태와 연결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됨을 보여준다.

3.2.1 화는 용기에 담긴 액체의 열(ANGER IS THE HEAT OF A FLUID IN A CONTAINER.)

Lakoff는 열기를 액체에 적용시켰을 때 용기에 담긴 액체의 열기(THE HEAT OF A FLUID IN A CONTAINER) 은유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난 열기(heat)의 은유를 분석하여 보겠다. 다음 예문들에서는 액체의 열을 높이는 행위인 끓이는 것으로 화나는 것을 표현하고 반대로 액체의 열을 식히는 것으로 화가 사그라지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9) a.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다.
b. 아유, 정말 **부글부글 끓네.**
c. 이제 그만 **화를 식히지** 그래.

이러한 열기라는 근원 영역은 화라는 목표 영역으로 사상되면서 근원 영역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게되는데 이를 은유적 함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은유적인 함축 중의 하나는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치솟는 이미지는 다음 표현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0) a. 화를 **불끈불끈** 내다.
b. 화를 **불뚝불뚝 내다/ 불뚝거리며** 화내다.
c. **불뚱불뚱** 화를 잘 낸다.
d. 울화가 **불끈 치민다.**
e. **불뚝하고** 성을 내다.[3]
f.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는** 펄펄 뛰었다.
g. 화가 **치솟은** 남자는 단 위에 올라가 일장 연설을 하였다.

예문 (10) a-d 는 '불끈불끈', '불뚝불뚝', '불뚱불뚱'과 같이 두드러지게 위로 자꾸 치밀거나 솟아나는 꼴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온도가 올라간 액체가 위로 치솟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온도가 올라간 액체는 은유적으로 화를 표현하고 반면, 화가 진정되는 것은 화가 '가라앉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래로 내려가는 이미지로 나타내어진다.

또 다른 은유적 함축으로는 온도가 올라간 액체에서 김이 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다음은 우리말의 속어에 해당하는 표현들인데 김이 나는 것으로 화가 나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1) a. **스팀** 받는다.
b. **김** 나네.[4]

이러한 표현들은 증기를 기본 개념 바탕으로 하여 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압력이 높아진 용기로부터 억눌렸던 증기가 분출되는 것은 참고 있던 억눌린 화가 터져 나오는 것에 연결되어 표현된다. 다음 예문 (12)는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모습으로 화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터지려고 하는 압력을 억누르는 것으로 화를 억누르는 것을 표현했다.

(12) a. **뚜껑 열리네.**
b. 참아오던 화가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었다.
c. 마음에 담지 말고 **터뜨려** 버려.
d. **화를 억누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의 표현들을 보면 화가 용기에 담긴 액체의 열에 체계적으로 사상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근원 영역의 각 요소들이 목표 영역의 요소들로 대응되는 것을 보면 화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가 인간의 인지체계를 구성하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의 그림은 화와 용기에 담긴 액체의 열의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3) a부터 e까지의 예문은 구유욱 외. 1996 *겨레말 용례사전*에서 발췌한 용례이다.
4) a와 b의 예문은 화에 대한 표현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용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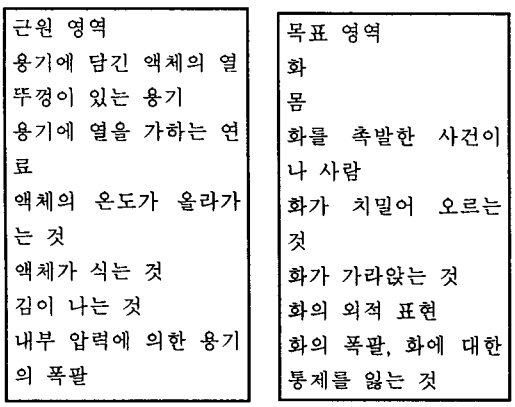

그림 2

3.2.2 불에의 은유(ANGER IS FIRE)

'화는 열(ANGER IS HEAT)'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고체에 적용되는 경우 '화는 불(ANGER IS FIRE)'의 은유가 나온다. 이는 우리말의 '화'가 한문으로 불 화(火)로 표시되는 것으로도 뒷받침이 되는데 이는 어원적으로도 화를 불에 비유하여 은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13) a.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d.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다.
e. 그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f. 눈에 쌍 **심지**를 돋구다.
g. 속 **타는** 소리 하고 있네. (화가 나서 속이 타는 경우)
h. 그 사람, 성질이 **불이야**.

위의 예문들은 화가 나는 사람을 '불난 집',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성질이 불이다', 화내는 것을 '불타는 것, 불길, 불꽃' 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화가 진정되는 것은 불이 없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화가 '사그라든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3.2.3 화는 미친 상태(ANGER IS INSANITY)

한국어의 화의 표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개념적 은유는 '화는 미친 상태(ANGER IS INSANITY)'이다. 3.1에서 언급된 화가 유발하는 생리적 증상 중 사물을 제대로 지각할 수 없는 상태가 좀 더 발전한 것이 미친 상태이다. 즉, 과장법을 사용하여, 화가 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를 미친 상태와 연결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4) a. **미치겠네!**
b. 저 인간 때문에 **돌아** 버리겠네!
c. 아유, **야마 돌아.**
d. 화가 너무 나서 **제정신이 아니다.**

(14)의 표현들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이다. c의 '야마 돈다'의 '야마'는 일본어의 머리에 해당하는 '다마'가 변형되어 '머리가 돈다' 즉 '미친다'의 뜻이 된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친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화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다. 즉, 미친 행동은 환유적으로 미친 상태를 환유적을 지칭하고 이러한 미친 상태는 다시 화의 영역으로 사상되면서 화의 감정을 표현한다. 또는 미친 상태의 인지 영역에 속하는 미친 행동이라는 범주는 화의 인지 영역 내에서 화가 났을 때의 행동과 대응되는 체계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15) a. 그 남자가 알면, **발작할** 텐데.
b. 그들은 **입에 게거품을 물고** 싸우 고 있었다.
c. 저 여자 또 노처녀 **히스테리** 증상 나오는군.

이러한 예문에서는 '발작', '입에 거품 무는 것', '히스테리' 등의 미친 사람의 증상으로 미친 상태를 환유적으로 표현하고 이는 다시 화에 연결되어 은유적으로 화의 감정을 나타내준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화는 미친 상태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되며, 화와 미친 상태의 인지 영역 간에는 체계적인 대응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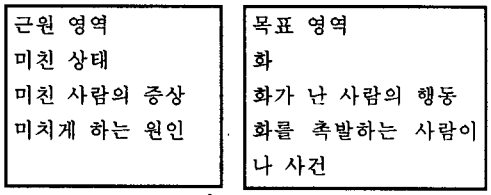

그림 3

요약하면, 우리말 화의 인지 모델은 열, 불, 미친 상태의 영역에 사상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한편, 화의 인지 영역 안에서는 화가 유발하는 생리적 결과를 들어 그 원인인 화의 감정을 표현하는 환유의 기재가 사용되었다. 또한, 미친 행동으로 미친 상태를 환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목표 영역인 화와 연결되어 은유의 표현을 이루게 된다.

4. 적합성 이론으로 본 은유와 환유

은유와 환유를 단순한 표현 기법이 아닌 인지적인 기제로 보는 것은 인지 화용론적 접근 방식인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Sperber & Wilson(1986, 1995)은 인간이 의사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을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로 보았다. 즉,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은 일종의 정보처리 과정이며 인간의 인지는 이러한 정보 처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최대의 적합성을 성취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가장 최소의 처리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인지적 효과를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적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적합한 자극을 제시하게 된다.

Sperber & Wilson은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은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사고를 발화의 명제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화자의 사고와 명제 형식이 동일한 경우는 글자그대로의(literal) 발화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글자그대로의 발화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많은 경우 사고와 명제 형식의 관

계는 유사성(resemblance)에 기반하게 된다. 즉, 발화는 인간의 사고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주어진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최적의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 글자그대로의 발화나 대략적인 발화(loose talk)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

Sperber & Wilson은 이러한 대략적인 발화와 같은 연속선 상에 수사적인(figurative) 언어들, 즉, 과장법, 환유, 제유, 은유, 아이러니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유사성에 기반하여 화자의 사고를 대략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했다는 점에서 [-literal]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점은 수사적인 언어들을 일종의 문학적 기교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 현상으로 포함시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보여진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자연 언어로 부호화시켜 글자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가정 하에서 볼 때, 이러한 대략적인 언어사용이나 수사적 언어는 인간의 언어사용을 풍부하게 해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하겠다.

적합성 이론은 인간의 인지에 기초하여 은유를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Lakoff 식의 접근 방식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제공한다. Lakoff는 인간의 개념체계가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Sperber & Wilson은 대화의 맥락상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청자의 부가적인 처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전달하는 함축의미가 증대되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두 접근 방식에서 제공하는 설명은 상호 보완적으로 인간의 비유적인 언어처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전 절에서 논의된 화의 표현을 예로 들어보자.

(16) a. 화나네.
b. 뚜껑 열리네.

a와 b 둘 다 화가 난다는 표현인데, a는 글자그대로의 표현이고 b는 은유에서 나온 표현이다. 사람들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에서 a 또는 b를 선택하여 발화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적합성 이론이 제시해 준다. 즉, b는 화자의 생각과 명제 표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는 부가적인 노력을 들이게 되고 이러한 노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b의 표현은 a가 전달할 수 없는 많은 함축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즉, 화자는 화가 많이 나서 몸 속의 열로 신체에 담긴 액체를 끓여서 주전자 뚜껑이 열리듯이 화가 끓어 넘칠 것 같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즉, 화자는 화가 난 정도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a 대신 b의 표현을 선택한다. 한편, 청자의 입장에서는 (16)의 b의 표현을 설사 처음 들어본다 할 지라도 '화는 용기에 담긴 액체의 열'이라는 개념적 은유의 도움을 받고 화가 유발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비교적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은유와 환유는 문학적인 기법 이상으로 인간의 언어사용을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인지적 기제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우리말의 화의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은유와 환유가 화라는 감정의 개념 체계를 구성하는 양상을 밝혀보았다. 한국어의 화의 표현들은 화를 불, 용기에 담긴 액체의 열, 미친 상태와 사상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화가 유발하는 생리적 결과를 들어 환유적으로 화를 표현하였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화용론적 접근 방식에서 나온 적합성 이론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인간의 비유적 언어처리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다.

위에서 논의된 이론을 응용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관용구를 학습하는데 적용될 수 있겠다. 어휘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어휘가 나타내는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므로, 어휘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그 어휘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러 관용구들을 하나의 개념 체계로 묶어 기저의 공통되는 개념적 은유를 찾아내어 학습시킴으로써 그 관용구들에 대한 의미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교수법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감사의 글

초고를 세심히 읽어주시고 토론해 주신 박정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Cacciari, C. and P. Tabossi, eds.. *Idioms: Processing,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2] Gibbs, R. "Figurative thought and figurative language" in M. Gernsbacher ed. *Handbook of Psycholinguistics.*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Inc. 1994.

[3] Lakoff, G.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4] Lakoff, G. & M.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5]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77-415. 1987.

[6] Lakoff, G. 1993.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Ortony, 1993.

[7] Ortony, A. *Metaphor and Thought.* New Y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8] Sperber, Dan & Deirdre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86, 1995.

[9] Ungerer, F. and H. Schmid.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New York,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114-155. 1996.

[10] 이 기동, "관용어, 은유 그리고 환유1." 「담화와 인지」, 제 4권 1호, 61-87. 1997.

사전

「한글 우리말 큰사전」 1.0. 서울: 한글과 컴퓨터. 1995.
구유욱 외. 「겨레말 용례 사전」 서울: (사)한글문화 연구회. 1996.
연세대학교 한국어 사전 편찬실.「말씀」 서울: Hancom Net Co. Ltd. www.hnc.net 1996-1997.
정태륭 편저.「우리말 상소리 사전」 (I) 서울: 프리미엄 북스. 1994.